

“농산물 농약 오염 불안하다”

국산 52%에 외국산 83% … 소음공해 여전히 심각수준

농산물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이 다소 감소됐으나,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의식을 조사한 결과, 「불안하다」는 응답 중 국산 농산물은 52.2%, 외국산은 82.9%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농약 오염 의식

(단위: %)

구 분	연 도	불 안	매우불안	약간불안	보 통	불안않음	별로불안	전혀안불안
국 산	2001	52.5	11.7	40.7	35.8	11.7	10.3	1.5
	1997	54.6	13.0	41.6	33.1	12.3	10.5	1.8
외국산	2001	82.9	49.2	33.7	14.3	2.8	2.4	0.4
	1997	88.8	59.2	29.6	10.0	1.2	1.0	0.2

또 현 거주지역에 대한 체감환경이 「나빠졌다」는 1997년보다 낮아져 개선됐으나, 아직도 「소음공해」와 「대기오염」 비중은 52%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환경 의식지수

(단위: %)

구 분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폐기물 오염	소음공해	녹지 등 환경훼손
2001	52.6	45.4	48.5	57.3	37.1
1997	70.0	64.0	55.9	60.5	48.7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대체로 감소했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1997년 수준과 비슷했다. 일반가구의 58.4%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고, 쓰레기 종량제 참여시 불편한 점으로는 「쓰레기를 집안에 두어 지저분하다」 응답이 36.9%로 가장 많았다.

환경오염 방지 국민의식

(단위: %)

구 분	쓰레기·재활용품 분리폐기	환경친화상 품구입	합성세제 사용줄임	1회용품 사용자제	물 아껴씀	환경·자연보 호 참여
2001	76.1	39.6	51.1	63.4	67.0	23.4
1997	76.1	53.2	67.4	66.3	69.4	27.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각종 법률을 제정·규제·단속강화」로 응답한 비율이 38.6%로 가장 높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찬성」 27.3%, 「반대」 39.4%로 나타났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4/ 16 >